

## 캘리포니아주, '직지의 날', '홍명기의 날' 제정



▲ 결의안이 통과된 뒤 한인들이 최석호 의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홍명기의날추진위원회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최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직지의 날'과 '홍명기의 날' 제정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9월 4일을 '직지의 날'로 제정한다는 결의안을 참석의원 66명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에서 직지의 날 제정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이다.

'직지(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는 1377

년 고려 우왕 3년 때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됐다. 독일 구텐베르크의 '42 행 성서' 보다 78년 앞선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으로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다. 2001년 9월 4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이날 '미국 한상의 대부'로 불렸던 고 홍명기 전 'M&L 홍 재단' 이사장을 기리는 기념일도 제정했다. 결의안에는 지난해 8월 별세한 고인이 미국 한인

사회에서 펼친 수많은 기부활동 내용과 함께 고인의 생일인 6월 20일을 '홍명기의 날'로 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홍 전 이사장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에 이어 생일을 기리는 두 번째 한인이 됐다.

홍 전 이사장은 1959년 UCLA 화학과를 졸업했다. 51세에 산업·건축용 특수도료를 생산하는 '듀라코트'를 창업해 세계 특수 페인트 시장 '톱 5'로 성장시켰다. 한국 청년들을 위한 장학 사업과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한상사회공헌재단' 이사장으로도 봉사해 2011년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 '아리랑축제', 3년 만에 다시 열린다

오렌지카운티(OC)한인축제재단 회장 정철승, 이하 재단이 개최하는 '아리랑축제'가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OC한인회관이 입주해 있는 가든그로브 US메트로뱅크 몰 주차장에서 열린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지 3년 만이다.

정 회장은 지난 21일 이와 같이 밝히며 "아리랑축제 기간 동안 한국 문화 알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를 위해 "축제 기간 동안 한복 패션쇼, 국악 공연, 시뮬레이션 공연 등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선보이고, 여러 해 동안 중단됐던 씨름대회도 다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단 측은 축제 기간 동안 국제무역박람회도 함께 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축제 현장에 설치되는

250여 개의 부스 가운데 100개는 한국 지자체의 특산물과 공예품, 미국 진출을 노리는 한국 기업들의 의료기기, 건강기능성 식품, 향노화 뷰티 제품 등을 소개하는 업체를 위해 제공할 예정이다. 음식 부스는 축제 현장 주변의 다른 식당들을 고려해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스는 개당 1,500달러이다. 단, 음식 부스는 개당 2,500달러부터 시작한다.

재단 측은 축제 홍보를 위해 오는 7월 30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부에나파크 더 소스몰에서 한복 패션쇼, 국악 공연, 7080 콘서트, 노래자랑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여름 아리랑 콘서트'를 열 계획이다.

▶ 문의: (714) 743-5740

## 한국어 이중언어 교육 김성경 교사 '올해의 교사' 선정



▲ 김성경 교사.  
사진=한국어진흥재단

애너하임초등학교 교육구의 토머스제퍼슨초등학교에서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김성경 교사가 비영리교육재단 이중언어교육협회(Association of Two-Way & Dual Language Education)가 선정한 '올해의 교사'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2 한국어진흥재단(이사장 모니카 류)에 따르면 이중언어교육협회는 토머스제퍼슨초등학교와 애너하임초등학교 교육구에 김 교사의 '올해의 교사' 선정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보낸 이메일을 통해 "김 교사는 지난 수년 동안 이중언어 교육에 혼신하고 특히 이중언어 프로그램 활용법을 가르치는데 모범을 남겼다."고 올해의 교사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토머스제퍼슨초등학교 측은 "이중언어 교육자 가운데 한국어 이중언어 교육자가 수상한 것은 이례적이고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학교로서도 매우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라고 전했다.

한국어진흥재단 측은 "김 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토머스제퍼슨초등학교는 재학생의 대부분이 라틴계 학생이어서 김 교사의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 운영은 더욱 특별하다."면서 "스페니시와 중국어가 이중언어 몰입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어 이중언어 교육 교사가 최우수 교사로 선정돼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이달 28일 리버사이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한편 애너하임초등학교 교육구는 2019년부터 산하의 모든 초등학교에 이중언어 몰입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이에 토머스제퍼슨초등학교는 한국어 이중언어 몰입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중언어교육협회는 미 전역의 초중등학교에서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Implant**  
**\$1,500**

**Crown**  
**\$700**

**잇몸치료**  
**\$600**

**틀니**  
**\$2,000**

**Exam**  
**X-ray**  
**Cleaning** **\$60**

**각종 보험**  
**메디칼 환영**

**KMC Dental Group**

**Irvine**

**Tel. (949) 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 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 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

Dr. Sung Hoon Cho  
DDS

THE TOWN NEWS  
June 27, 2022 Vol. 1426 15

커뮤니티 소식  
June 27, 2022 Vol. 1426 15

한국어 이중언어 교육  
김성경 교사  
'올해의 교사' 선정  
애너하임초등학교 교육구의 토머스제퍼슨초등학교에서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김성경 교사가 비영리교육재단 이중언어교육협회(Association of Two-Way & Dual Language Education)가 선정한 '올해의 교사'에 이름을 올렸다.